



Red Cross

2025 vol. 581 SPRING

1905



1950



1995



2025



사진으로
보는
대한적십자사
12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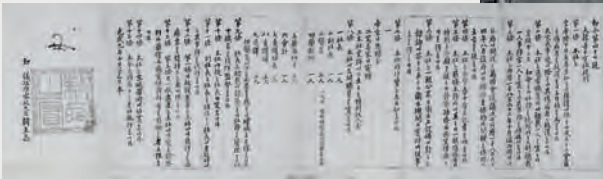
1903. 1. 8

대한제국 제네바협약에 가입



1905. 10. 27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 창설



1919. 8. 29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적십자회 설립(내무부령 제62호)



1950. 6

한국전쟁 중
주먹밥을 배급하는
적십자구호요원

1949. 10. 27

대한적십자사 재조직 기념식에
게양된 적십자기



1947. 3. 16

조선적십자사 창립



1920. 1. 31

대한적십자회 총사무소 내
적십자간호원양성소 개소



1951. 7

한국전쟁 중 흑산도 적십자구호소,
서울적십자병원에 임시구호병원 설치



1972. 8. 29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



1958. 2. 15

국립혈액원 인수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1964. 5. 26

청소년적십자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1953. 4. 5

청소년적십자(RCY) 조직(3월) 후
최초의 식목 봉사활동(부산 안남동)



1960. 4. 19

4.19혁명 부상자를
위문간호하는 적십자봉사원



CONTENTS

- 06 역사 속 대한적십자사
생명이 위급한 순간, 달려가는 사람들
- 08 RC 국내 리포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치유합니다
- 12 RC 해외 리포트
붕대 하나, 붓질 하나로 연결된 마음
- 16 RC 사람들
그들의 무전은 멈추지 않았다
- 18 RC 자립준비청년 응원 캠페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반지
- 20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기업
아들이 꿈꾼 세상 나눔으로 잇다 _챔피언 더시티세븐물 창원점 정길영 대표
- 22 후원금 사용 보고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 24 함께하는 RC
빵 굽는 온기, 떡국 한 그릇의 위로
- 26 최갑수의 여행
어느 봄날, 세종마을 대한국적십자병원 터 주변을 걷다
- 28 일상 속 RC
설렘 가득! 봄 산행 떠나볼까?
- 30 RC News
지역별 적십자 소식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42 RC를 만나는 방법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 43 RC 후원자 코너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커버스토리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앞표지

- 1905년 고종황제 대한적십자사 칙령 제47호
- 1950년 한국전쟁 중 주먹밥을 배급하는 적십자구호요원
-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긴급 구호활동
- 2025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긴급 구호활동

뒤표지

- 2005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긴급 의료진 파견
- 2023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활동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희망 소식



채널 바로가기



웹진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RedCross

발행인 김철수 편집인 박종술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홍보팀(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전화 02-3705-3705 기획·디자인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120주년을 넘어 대한민국과 함께하겠습니다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우리나라에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20년 동안 재난과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해온 시간이 되돌아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는 구호활동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전쟁, 각종 재난과 재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적십자는 변함없이 국민 곁을 지켜왔으며,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곁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호 및 의료 긴급대응팀을 급파하여 부상자 치료와 생존자 보호를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피해 가족들을 위한 심리회복지원 서비스도 즉시 가동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줄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서적 안정과 치유의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울산,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현장에도 적십자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20년간 축적해온 인도주의적 대응의 경험과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재난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 글로벌 경기 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담한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며 희망의 등불을 밝혀왔듯,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2025년, 대한적십자사는 다섯 가지 핵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재난구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대한적십자사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구호 인프라를 현대화하

여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도착하는 신속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국제 인도주의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전 세계 191개국의 적십자사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무력충돌과 재난에 더욱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자살 예방, 이주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인도주의 교육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적십자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활성화하여 미래 세대가 인도주의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의료사업과 헌혈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헌혈 참여 프로그램과 헌혈자 예우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이 함께하는 자발적 헌혈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단순한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재난을 넘어 헌혈과 의료까지,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공동체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또한 세계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가 되겠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 철 수

생명이 위급한 순간, 달려가는 사람들

성수대교부터 세월호까지, 참사의 현장에서 생명을 지킨 대한적십자사

우리 사회가 크고 작은 재난을 맞닥뜨린 순간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구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만 힘을 쏟아왔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적십자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참사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출근길의 악몽 -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4년 10월 21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한강 위 성수대교를 건너던 차량들은 언제나처럼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7시 38분, 갑자기 교각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48m 길이의 다리 상판이 붕괴했습니다. 경찰 승합

차와 승용차 2대가 한강으로 추락했고 뒤이어 2대의 승용차와 시내버스까지 떨어지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적십자는 사고 발생 직후 적십자 129응급환자센터를 통해 인근 병원의 응급차량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구호요원들은 군경 구조대원과 함께 생존자 구조에 나섰으며, 서울지사 봉사원들은 3천 명분의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 구조대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밤낮없이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십자는 구호텐트와 무전기, 생필품을 지원하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충격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참사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한번의 비극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0분,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상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붕괴해, 건물 안에 있던 고객과 직원들은 물론,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까지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이 즉시 본부에 사고를 알렸고, 5분 뒤인 오후 5시 55분, 구호요원 40명과 의료진 4명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생존자 구조와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한편, 담요와 구급물품, 부상자 이송용 장의낭까지 준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본사 강당에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후송을 도왔고, 전국 혈액원을 통해 3,100유니트의 혈액을 공급하며 긴급 수혈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지사 봉사원 70여 명은 이동급식차량 2대를 이용해 구조대원과 생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적십자의 노력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울었던 날 -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을 깊은 슬픔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476명이 탄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이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했고, 수많은 학생과 승객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적십자는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안산 단원고, 진도체육관,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 구호소를 설치했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모여 구호물품 전달, 긴급 급식 지원, 피해자 가족 심리상담에 나섰습니다. 17,833명의 구호인력과 더불어 담요 4,208매, 급식 110,146인분, 생필품 수천 개에 달하는 구호물품이 곳곳에 지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심리상담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참담한 비극 중에도 적십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는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참사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국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펼칩니다. 평상시에는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구호 종합훈련과 유관기관 협력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 유지, 재난 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대한적십자사의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치유합니다

트라우마 치유와 재난심리지원의 중요성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보건 참사부터 2022년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 2024년 여름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에 이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연이은 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재난 이후의 정서적 아픔까지 보살피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70-9517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함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장 먼저 달려간 대한적십자사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후, 적십자사는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광주·전남지사를 중심으로 구조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지역의 직원과 구호요원, 봉사원 등의 구호인력과 재난대응차량, 회복지원차량 등 구호장비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어서 담요, 라면, 생수, 비상식량세트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항에 재난 구호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구조인력과 피해자 가족을 위한 하루 1,600인분의 식사 제공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적십자 광주·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남 등의 지사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문 상담가와 장비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충격과 슬픔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난이 남긴 상처, 마음까지 보살펴야 합니다

재난사고는 유가족과 생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누구에게나 여러 심리적·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 증가·불면·소화불량·근육 긴장·피로감·식욕 저하 등과 같은 신체 반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고 현장 이미지나 관련 소식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악몽·무력감·분노·우울감 등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재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참사와 같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회복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안정을 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존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가족, 친척, 친구와 슬픔과 고통을 나누거나 재난회복지원 그룹 등을 통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구호활동 내용

급식지원 7,320인	심리상담 2,153명
샤워지원 854명	담요 3,965매
회복차량 1,725명	셀터 150동

물자지원

라면, 김밥, 생수, 상비약, 간식,
세면용품, 기부물품 등

구호장비

재난회복지원차량, 이동식샤워차량
LG 유플러스 핸드폰 충전차량 등

활동인원

총 **1,132명**

*2024년 12월 29일~2025년 1월 14일, 누적 기준

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확률

참사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정신질환

불안장애 46.7%	우울장애 39.2%
----------------------	----------------------

참사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확률

재난으로 인한 상해 질병 피해 시
2.59배

재난으로 인한 지자체 정부와 갈등 시
5.05배

국가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불충분 시
2.16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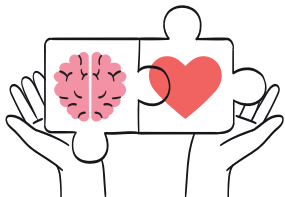
*2012~2017년 태풍·호우·지진·화재 등 재난 피해자 1,390명을 대상으로 진행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후까지 이어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으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태풍, 지진,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이나 이재민대피소 등 재난경험자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무료 상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재난 발생 전에는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재난심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PFA(Psychological First Aid, 심리적 응급처치) 및 재난심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PFA 실시 및 심리 상담을 전개하고, 복구 후에도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 및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위탁사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방문 및 전화 심리상담, 재난심리회복 전문가 및 심리회복 전문인력 양성, 재난심리회복지원 기초조사 및 활성화 연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신청

대한적십자사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

 **1670-9512**



재난심리상담 신청 홈페이지



채정호(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창립회장)

20년 전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연구회를 창설해 새로운 트라우마 전문기술을 정신의학계에 전파하고 있다.

현재 긍정네트워크 옵티미스트 클럽 회장과 긍정학교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채정호TV



트라우마와 연대: 우리를 잇는 금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재난을 설 새 없이 겪어내고 있다. 참사 직후 일어난 온 국민의 애도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지고, 당사자들만이 고통 속에 남겨진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직도 힘들어해?”라거나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아?” 같은 무심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마음에 박힌다. 심지어 트라우마 경험자들을 향한 지원과 관심에 ‘사회적 비용’이 아깝다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은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언제든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큰 참사일수록 사회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 그렇게 벌어진 피해와 고통을 ‘그들만의 문제’로 여겨버린다면, 어느 순간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다음 재난은 ‘나만의 문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참사 이후 남겨진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또 한번 상처받는다. 트라우마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충격이다. 트라우마 경험자들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힘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타인과의 관계도 어렵고, 자신을 지탱하던 신념조차 흔들린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며 인간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하

고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트라우마 민감 접근(Trauma-Sensitive Approach)’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배려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고,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본디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를 돕고 협력해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며 살아남아왔다.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한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내가 낸 세금을 그들에게 써야 하는가?”라며 냉소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타인과 얽혀 살아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지탱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사랑은 금실처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내가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꼭 붙잡아낼 수 있다. 만약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점점 더 사회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그들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 또한 함께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상처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라우마 경험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이 세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금실이 될 것이다. 약해 보이는 그 금실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이다. ●

봉대 하나, 붓질 하나로 연결된 마음



청소년적십자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기

대한적십자사는 2012년부터 삼성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총 1,415명의 청소년들과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211명의 청소년들이 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봉사 - 서로의 맘을 닦아주며 봉대 매듭도 척척!

2025년 1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인 배우 정일우가 청소년적십자(RCY) 회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바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봉사활동이었는데요.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삼성이 후원하는 '청소년 멘토링 해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충청·경북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53명의 RCY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일우 홍보대사와 RCY 회원들은 자카르타 국립 이슬람중학교를 방문해 현지 학생들에게 '봉대 매듭법' 등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RCY 회원들과 현지 학생들은 서로의 맘을 닦아주며 비상 시 누군가의 생명의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에 임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한국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우정의 선물상자'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문화 교류 시간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우정의 선물을 아시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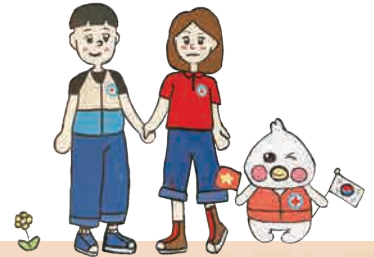
'우정의 선물'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캐나다, 호주의 청소년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은 유럽의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보낸 것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적인 청소년적십자 활동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91년부터 학용품으로 구성된 '우정의 선물'을 제작해 국내외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해외봉사
- 알록달록 칠해지는 우정 이야기

2025년 2월 중순,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된 두 번째 해외 봉사 활동에도 정일우 홍보대사와 RCY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 이번 활동에는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들이 서로 교류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53명의 RCY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일우 홍보대사와 RCY 회원들은 호치민 지역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노후화된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 현지 학생과 벽화를 그리고, 다함께 참치 주먹밥과 베트남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실, 손 씻기 교육, 음악 교실 등을 열어 현지 학생들에게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RCY 학생들이 준비한 '우정의 선물상자'도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정일우, 나눔으로 가치를 전하는 배우^{♡♡}

2023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정일우는 국내외를 넘나들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가 주관한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빵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연말 자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0만 원을 희귀병 환자 지원을 위해 기부하며 따뜻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정일우 홍보대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삼성 후원 청소년적십자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적십자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심 어린 봉사, 선행과 더불어 더욱더 빛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정일우

대한적십자사





정일우
해외봉사활동기 영상

캄보디아 해외봉사 - 희망을 짓다, 미래를 밝히다

2025년 1월 중순,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RCY 단원들은 캄보디아에서 6박 8일간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은 캄보디아 빈민촌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 확장공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학교 내 조리실과 도서관 설치에도 힘을 보태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400만 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도 지원했는데요. 허정구 울산지사 사무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며, RCY 단원들의 해외봉사활동 경험이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으로 똘똘 뭉친 청소년들의 인도주의 리더십 도전기

청소년적십자 해외봉사활동은 대학생 멘토와 중·고등학생 멘티가 함께 해외로 파견되어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도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봉사활동 실습, 응급처치 강습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여 현지에서의 봉사활동에 대비합니다. 현지에서는 학교 시설 개보수, 벽화 그리기, 맹그로브 묘목 심기 등 환경 개선 활동과 함께, K-POP과 태권도 공연, 전통 부채춤 교육 등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인도주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들의 무전은 멈추지 않았다

30년간 재난 현장을 지켜온
이도희, 김양섭 구호요원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
구호요원들은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마지막까지
구호활동을 지원합니다.



무전기 하나로 시작된 구호활동, 30년을 이어오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 구호요원(재난대응봉사회)은 현재 전국 400여 명 규모로 운영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사(HAM)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무선봉사회가 그 시작으로, 이후 세계적인 재난대응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울지사 재난대응봉사회 소속 이도희(1954년생), 김양섭(1963년생) 구호요원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호지원 활동에 나선던 30년여 경력의 베테랑 구호요원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현장, 가장 먼저 달려가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서울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참사였던 터라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날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한 이도희 구호요원은 사무실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창밖을 보니 성수대교가 끊겨 있었어요. 곧바로 적십자에 연락했고, 성수대교와 가까운 곳에 있던 제가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죠.”

그는 무전기로 대한적십자사 본부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며 현장 상황을 전달했고, 구조대원을 위한 급식차와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양섭 구호요원은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군 출신이었던 그는 해양경찰과 함께 보트를 타고 성수대교 상판으로 올라가 생존자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해양경찰과 힘을 합쳐 구조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도희 요원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본부에 전달하고 경찰과 소방, 다른 지원팀에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19 구조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만큼, 구호요원들의 무전 시스템은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무전이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평소처럼 퇴근하던 이도희 구호요원은 무전에서 긴급한 신호를 들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로 정체되니 우회 바랍니다.”

그는 곧바로 방향을 돌려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호요원들은 즉시 무선통신본부를 설치했고, 구조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전화와 전기가 모두 끊겼어요. 유일하게 연결이 가능했던 것이 저희 구호요원들의 무선통신이었죠.”

현장에서 뒤늦게 합류한 김양섭 구호요원도 무선통신을 지원하며 구호용품 접수를 도왔습니다. “구호물품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접수할 공간도 부족하고 조율이 어려웠어요. 그때 기업들이 ‘반환이나 세금 처리는 필요 없으니 필요한 데 써달라’며 구조장비를 제공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의 무전 시스템은 관할지별로 주파수가 달라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구호요원들이 구역별로 배치되어 상황을 소방지휘본부로 전달했고, 지휘본부에서는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원활한 구조작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헬리콥터 접근 금지 요청을 무전으로 전파한 것도 바로 구호요원들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지하층 위를 저공비행하면서 생기는 진동 때문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어요. 즉시 항공통제본부에 연락해 헬기 접근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봉사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난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죠.”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들

30년 넘게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온 두 구호요원은 이제 재난구조 강사로도 활동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양섭 구호요원은 말합니다. “처음엔 무전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난 현장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됐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구호요원도 덧붙였습니다. “봉사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난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죠.” 그들이 지나온 30년의 시간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재난의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그 속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들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반지

- 세이빙 링,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을 응원하는 착한 소비

한 해 약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겪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이빙 링(Saving Ring)' 캠페인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알리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어려움, 냉혹한 현실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 홀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활과 건강관리, 정서적 지지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약 2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평균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디자인, 착용감 굿! 거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세이빙 링은 사다리 체인을 납작하게 눌러 평평하게 만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체인 반지계의 퀸'이라고 불립니다. 가벼운 중량임에도 넓은 면적으로 빛 반사를 잘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자연스럽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찬 듯, 안 찬 듯 이 물감 없는 착용감 덕분에 생활 중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청년들의 생계비, 주거환경 개선비, 교육비 등 홀로서기에 필요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까지 담고 있는 굿즈, 세이빙 링은 대한적십자사의 씬씬이가 바른 기업인 '엘렌쥬얼리'에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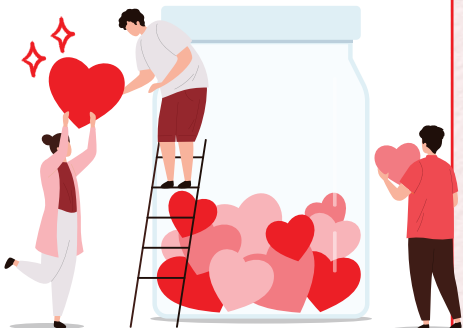
세이빙 링 상세설명

- 로즈골드 / 14K(58.5%)
- 사이즈(손가락 둘레 기준)
 - 9.5호: 53mm(반지 안지름 16.0mm)
 - 15호: 59mm(반지 안지름 18.0mm)
 - 21호: 66mm(반지 안지름 19.8mm)
- 제품품질보증서 제공(굿즈 패키지 내 동봉)



지원 그 후

2024 <RedCross> 겨울호에 실린 '시한부 엄마를 돌보는 서준이'를 기억하시나요? 서준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20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382만 2,395원이 모였고, 서준이 가족의 치료비와 시급한 생계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서준이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원금 약 1,382만 원은 서준이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하기 전 꼼꼼한 문의사항



Q. 후원금액별 반지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만 원 정기후원 신청 시, 반지 1개가 발송되며 4만 원 정기후원 신청 시, 2개입니다.

Q. 반지 사이즈를 다르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이즈별 후원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반지 사이즈 교환이 가능한가요?

사이즈 교환 및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Q. 제작 발송은 언제쯤 되나요?

정기후원 신청 후 최초 결제일로부터 약 2주 후 발송됩니다.

Q. 세이빙 링 외에 굿즈도 있나요?

신규 후원자에게는 세이빙 링을 포함해 굿즈 키트가 발송됩니다. 단, 기존 후원자가 '세이빙 링'을 추가 신청한 경우, 세이빙 링만 발송됩니다.

*가입 및 기타 문의 1577-8179(대한적십자사 콜센터)

아들이 꿈꾼 세상 나눔으로 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경남 9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경남 21호
정길영 대표

정길영, 김경자 부부는 나눔을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가치로 여기며,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부터 해외 구호사업까지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이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정길영 대표는 2003년부터 철못 제품 제조업체인 (주)네일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대부분을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견실한 기업입니다. 2023년에는 키즈카페 “챔피언 더시티세븐몰 창원점(이하 챔피언)”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앙 속에서 오랜 기간 기부를 실천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눔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2021년 12월, 가슴으로 낳은 아들 요한이를 떠나보내면서였습니다. 2015년 정길영, 김경자 부부는 다섯번째 아이로 요한(당시 4살)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이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부는 6년동안 함께한 요한이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2022년 요한이의 이름으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아너스클럽 9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부부는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성금 기탁, ‘씀씀이가 바른기업’ 가입, 2024년 아너스기업 경남 21호로 가입 등 (주)네일테크와 챔피언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정길영 대표는 “얼마 전 챔피언과 아동전문기관이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었고, 이번 주 처음으로 위탁가정 아이들이 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올 예정입니다”라고 전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때가 찾아옵니다

꽃동네 정진석장학재단 기부, 아이티 내전 및 베네수엘라 난민 구호사업 후원 등 국내외 다양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정길영 대표는 부인 김경자 씨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합니다. “한창 바쁘게 일할 때는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중심을 잡아주었어요. 나눔의 길을 알게 된 것도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김경자 씨는 지금처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자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넉넉해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요한이를 입양한 것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이를 통해 이웃과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씩 실천하는 지금이야말로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길영 대표는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성공보다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후원과 관련된 행사 초청이나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나눔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김경자 씨는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행복을 이야기하며, 그 선순환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만 있다면 다 이룬 거예요. 저 또한 나눔의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눔은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2024년 재난구호사업·국민안전교육

재난구호 사업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구호영역 확보, 안정적 구호활동을 위한 물자·장비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재난심리회복지원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내실화 및 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으로서의 재난교육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체계 강화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정부 구호물자 수탁사업
12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11,303세트 제작

8,545세트 위탁



안정적 구호활동 위한 물자·장비 확충 및 현대화

재난현장 구호활동·종합 상황관리
구호지휘차량 신규 도입 **1**대

이동급식차량 설비 보완 및
가스안전검사필증 획득 **28**대

이동세탁차량
전기설비 현대화 **7**대



재난심리회복지원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재난경험자 심리상담, 정서지원 등
심리지원 실시 **12,733**건

17개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인력 정규직 확보 **17**명

전문인력 채용으로 사업 전문성 강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권역별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가이드북 교육
19명 **283**명(5회)

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 확대

사회·자연재난 구호사업 운영
6,063가구 **10,309**명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심리사회적지지 교육 등
재난 교육 실시

26,579
명(731회)



국민안전교육 사업

전 국민 1% 대상을 목표로 안전교육과정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안전교육과정

응급처치 수료

263,566

명

(2023년 대비 12.5% 증가)

수상안전 수료

19,223

명

(15.7% 증가)

안전지식 보급

96,048

명

(60.9% 증가)



안전지식 보급

교직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 법정 의무교육 실시

66,031

명(2,329회)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어린이안전교육 상시학습과정 운영

25,620

명

수상활동 인명구조요원 양성

6,471

명(321회)

응급처치 상설교육 프로그램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12,112

명

(사업금액 11억 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27,569

명

(사업금액 10억 원)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세계 응급처치의 날 캠페인

오프라인

37,437

명 참여

응급처치 경연대회

2,106

명 참가

(전국 14개소 527개 팀)

전국 심폐소생술 대회

초중고등부 및 육군장병 포함

245

명 참가

(51개 팀)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건국대학교 연계 특별교육 최초 실시

47

명 수료

빵 굽는 온기, 떡국 한 그릇의 위로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안재욱, 소유진, 이승기의
봉사활동기

새해의 첫 시작을
봉사로 채우는 것만큼
뿌듯하고 따뜻한 일이 있을까요?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시무식을 대신해
봉사활동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 속 따뜻한 마음을 나누다

2025년 1월 2일, 서울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사 중앙봉사관에는 맛있는 빵 굽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김철수 회장과 임직원 20여 명을 비롯해 '나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안재욱, 소유진 홍보대사가 마음을 보태기 위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홍보대사는 봉사관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곧장 제빵실로 향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정성스럽게 빚고, 구워지는 빵을 보는 두 홍보대사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안재욱 홍보대사는 "이 빵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하

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유진 홍보대사 역시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게도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정성껏 구운 350개의 빵은 적십자봉사원들을 통해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새해 첫 제빵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철수 회장은 "새해를 봉사로 시작하게 되어 뜻 깊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십자가 늘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 안재욱·소유진 홍보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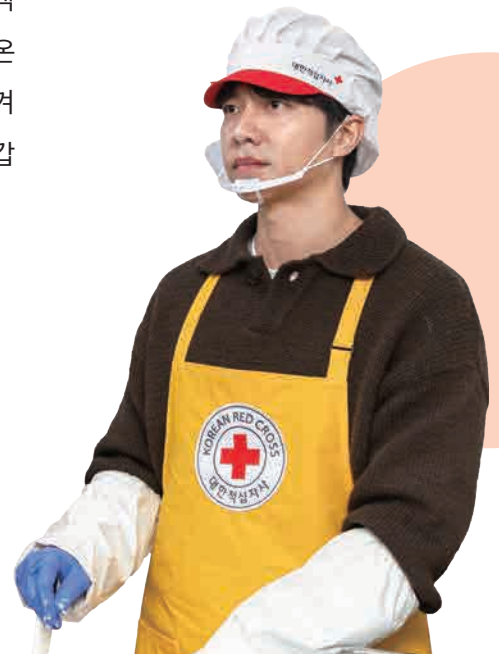
안재욱 홍보대사는 2016년부터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모금 캠페인 홍보 모델, 이재민 급식 봉사, 제빵 및 떡국 나눔까지 다양한 구호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강원도 산불, 코로나19 재난구호,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어려운 순간마다 적극적인 기부와 봉사로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소유진 홍보대사는 2019년부터 적십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동 의료비 지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 캠페인 모델로도 활약하며, 목소리 재능 기부로 환아 지원 모금 캠페인 영상 내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두 배우 모두 적십자에 1억 원 이상 기부하며, 연예계 대표 선행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까지 데워주는 떡국 한 그릇

2025년 1월 17일, 서울역 인근의 무료 급식시설 ‘따스한채움터’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새로운 홍보대사 이승기가 첫 공식 일정으로 떡국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 김철수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정하 재능나눔봉사회 회장, 대학 RCY 회원 등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가 사골떡만둣국, 돈육김치볶음, 컵과일 등 200인분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승기 홍보대사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서 새해 첫 봉사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배식 후 이용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장갑 200켤레도 선물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이승기 홍보대사

이승기 홍보대사는 대한적십자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동해안 및 강릉 산불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이동급식차량과 헌혈버스 제작을 위해 7억 6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한 그는, 2023년 9월 적십자 기후위기 복원력 홍보대사로도 위촉되어 국제적인 인도주의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승기 홍보대사는 2025년 1월 7일 위촉식에서 “제가 받은 사랑만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활동에 저를 많이 활용해주세요!”라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승기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적십자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고통받는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따스한채움터를
아시나요?

‘따스한채움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202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하루 두 번, 연간 730회에 걸쳐 13만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스한채움터’에는 11개의 단체가 급식 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세종마을 대한국적십자병원 터 주변을 걷다

조선시대 예술가들이 살던 마을

세종마을은 흔히 서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 별칭으로 통의동, 창성동, 체부동, 효자동, 누하동, 누상동, 옥인동, 필운동 일대를 가리킨다. 내내 서촌으로 불리다 2011년 종로구에서 세종대왕 탄신 614 주년을 맞아 '세종마을'로 명명했다. 북촌이 양반 집권 세력의 거주지였다면, 서촌은 고관대작부터 중인, 아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층이 함께 살아온 곳이다. 이곳에서 세종대왕이 태어나고 영조가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조선 중기의 재상이항복과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가 살았다. 근대에는 화가 이중섭과 이상범, 시인 윤동주와 이상 등의 예술가들이 서촌 주민이었다. 겸재 정선의 명작 '인왕제색도'가 탄생한 곳도 바로 이 일대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보통학교인 매동초등학교와 종로도서관,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 건축의 특징을 간직한 배화여고 생활관 등 역사적 건축물들도 자리해 있다.



최갑수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작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여행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랑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 이순간도 어딘가 여행 중이다.

@ssuchoi



봄이 왔다.
운동화를 신고 세종마을을 산책했다.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보안여관을 지나
한옥마을 골목을 따라 걸었다.
보안여관 앞은 대한국적십자병원이 있던 자리다.
세종마을에서는 낮은 지붕들이 이어진 한옥 사이를 걸으며
한가로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골목마다 숨어 있는 독특한 카페와
갤러리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슴 따뜻한 70년대 풍경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1905년
대한적십자사
병원이 있던 곳

경북궁역에서 나와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추문 건너편으로 허름한 건물 한 채가 등장한다. 유난히 하얀 간판에 파란 글씨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보안여관은 8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 온 통의동의 역사 그 자체다. 천재 시인 이상의 시 '오감도'에 등장한 막다른 골목이 바로 보안여관 부근이었다. 미당 서정주가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들고, 김동리, 오장환 같은 문인들이 꿈과 희망,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곳도 이곳이다. 보안여관 바로 앞은 대한국적십자병원 터다. 지금은 잠시 치워진 표석글에는 "1905년 대한적십자사 창설과 함께 개원한 병원이다. 고종의 칙령에 의해 빈민 구료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07년 대한의원에 통합되기까지 1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적혀 있다.

1906년 2월 12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대한국적십자사공포취지서'(大韓國赤十字社公布趣旨書)에는 "9월 15일부터 환자를 치료하여 (중략) 남녀노소 치료에 수가 781인에 달하였으니"라고 적혀 있다. 창설 당시 고종이 건축비로 2만 환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1907년 광제원, 의학교 부속병원과 함께 대한의원으로 통합됐다.



한옥 처마 아래
골목 따라
느긋한 발걸음

보안여관을 지나면 창성동한옥마을과 만난다. 사대문 안의 한옥 1,400여 채 가운데 300여 채가 서촌에 남아 있는데, 대부분 1910년대 이후 주택 계획에 의해 지어진 이른바 생활형 개량한옥이다. 전통한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왠지 어렸을 적 살던 동네가 생각나는 친숙한 모습이다. 한옥마을에서 쌍흥문터, 해공신익희 가옥을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은 거미줄처럼 얽힌 골목의 연속이다. 이정표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걷다 보면 길을 잃기 일쑤다. 그래도 으리으리한 한옥이 모여 있는 북촌보다 낮이 익다. 고개를 들면 파란 하늘과 초록빛 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기와지붕을 타고 낮은 담장을 따라 고양이들이 산책을 다니기도 한다. 골목을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내려오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통인시장에 닿는다. 세종마을의 전통시장으로 일제강점기인 1941년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고 한국전쟁 이후 체부동, 누하동 등으로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커졌다. 기름떡볶이로 유명하다.

경복궁 건너편은 서울경찰청. 경찰청 맞은편에는 버터향으로 발길을 붙잡는 크루아상 맛집 '파넬트 광화문점'이 있다. 종로 방면으로 걸음을 했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장국집 '청진옥'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듯. 두 곳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희망나눔 사업장이다.●



설렘 가득! 봄 산행 떠나볼까?

하이킹 에반젤리스트가 알려주는 안전 산행 가이드 팁

4월이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꽃과 새순을 즐기며 산행을 떠나지만, 준비 없이 나서면 발목 부상부터 낙상, 심장마비 같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봄 산행을 위해 미리 대비하세요.

☑ 김섬주

국내 1호 하이킹 에반젤리스트이자 웰니스 하이킹 기획자. 하이킹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돕는 운동만이 아니라 개인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다른 삶의 방식이라 말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이킹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

@seomjoo.kim



봄 산행의 복병!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2만 4,302건이며, 4월에만 2,051건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실족(34%), 조난(28%), 신체질환(20%) 순입니다. 봄철 등산로는 이슬과 서리로 미끄럽고 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등산화와 스틱을 활용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포근하지만 산에서는 언제든지 추울 수 있으니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방풍 외투를 준비하세요. 날씨 정보 확인도 필수입니다. 비 예보가 있으면 일정을 조정하고, 등산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산행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등산화	방한 의류	모자 & 선크림	여분의 양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 착용	 기온 변화를 대비한 가벼운 외투	 자외선 차단 필수!	 발이 젖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
물 & 간식	스틱(선택)	응급 키트	긴급 상황용 물품
 탈수 방지, 체력 유지 위한 간식	 무릎 보호 및 균형 잡기에 도움	 소독약, 밴드, 개인 상비약	 비상용 랜턴, 호루라기, 보조배터리

무리하지 말자!

가슴이 답답하다면 휴식이 필수!

산속은 기온차로 혈관이 수축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심정지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 동안 줄어든 운동량 상태에서 갑자기 강도 높은 산행을 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긴장감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혈액 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산행 전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휴식하세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혼자보다 둘 이상이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멈춘다면?

골든타임은 단 4분!

산행 중 누군가 쓰러지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과 호흡이 없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산 위치, 주변 지형, 심정지 여부 등을 알리고, 환자를 평평한 곳으로 옮겨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세요.

일행이 있다면 AED를 가져오도록 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슴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호흡이 돌아오면 옆으로 눕혀 기도를 유지하며 상태를 관찰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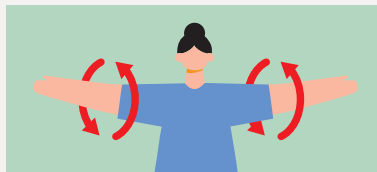
김섬주의 산행 전 필수 스트레칭



발을 바르게 정렬한 후 앞꿈치와 뒤꿈치를 번갈아 들어올려 종아리를 자극합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펴지 않도록 주의하며 부드럽게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반대쪽 팔을 길게 뻗으며 몸을 비틀어줍니다. 몸의 옆 라인을 늘려주고 허리과 어깨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뻗은 후 작은 원 → 큰 원 순으로 돌려줍니다. 어깨와 팔의 가동 범위를 확장하며 상체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됩니다.



손을 가슴 중앙에 위치한 뼈(흉골)에 대고,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시행하세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김섬주의 스트레칭
보러가기



본사



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우수' 달성

대한적십자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2021~2024년)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33개 공직유관단체그룹 내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적십자 사업의 청렴성을 입증했다. 김철수 회장은 "대한적십자사의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십자 고유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사



서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70년... "사랑 나누는 의무 실천"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서울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올해 결성 70주년을 맞았다. 자문위는 사회지도층 여성들로 구성된 후원 조직으로, 다방면에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며 적십자봉사원들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문위원들의 개인별 기부금 합산 금액만 22억 원에 달하며 올해 4명의 자문위원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 가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부산지사



한 생명을 일으키는 '반올림 프로젝트', 첫 모금액 전달

부산지사는 지난해 11월 '조금만 도와주면 한 가정, 한 생명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반올림 프로젝트' 모금을 시작했다. 첫 후원 대상으로 강서구 불법번식장 구조견과 부산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무너진 재훈씨(가명) 가족이 선정되었으며, 2달간 부산 시민 및 단체, 적십자봉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700여 만 원을 모금했다. 희망의 기틀을 마련해줄 이번 모금액은 2월 전달식을 통해 각 대상자에게 전달되었다.

대구지사



"능력 있는 청년을 육성합니다" 장학금 1억 5천만 원 지원

대구지사는 지난 12월 26일, 능력 있는 청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관내 학생 296명에게 적십자 장학금과 희망천사학교 장학금으로 마련된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적십자 장학금은 197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쌀 한 줌 모으기 운동'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25억 5천만 원(17,816명)이 지원되었다. 정기후원 학생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희망천사학교 장학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4억 4천만 원(2,101명)이 지원되었다.



대전·세종지사



**신재생에너지공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대전세종 11호 가입**

신재생에너지공사가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대전세종 11호로 가입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은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적십자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으로, 신재생에너지공사는 총 3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재생에너지공사는 태양광패널 고정장치 제조기술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지사



**2025 명예의 전당
승격식 개최**

경기지사는 2월 21일 경기지사 안정근 홀에서 2025년 명예의 전당 승격식을 개최했다. 이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2만 시간, 1만 시간 이상 실천한 봉사원, 20년 이상 RCY(청소년적십자) 활동을 지도해온 지도교사, 20년 이상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힘써온 보건안전강사,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선 나눔홍보위원, 1억 원 이상 기부자 등 총 26명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지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구조활동 전개**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2월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과 관련해 긴급 구조활동을 전개했다. 사고 직후 17일간 임직원 245명, 봉사원 595명, 재난심리 활동가 291명이 현장에서 활동했으며, 담요 3,965장, 쉼터 150동, 사위차량과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했다. 또한 급식을 포함한 물품지원 부스, 재난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해 약 5억 6100만 원을 모금했다.

경북지사



**적십자봉사회 성주군협의회,
신규 단위봉사회 3개 동시 결성**

적십자봉사회 성주군협의회는 1월 21일 가천, 금수강산, 벽진 등 3개의 단위봉사회를 신규 결성했다. 그동안 성주군의 10개 읍, 면 중 적십자 봉사회가 없었던 가천면, 금수강산면, 벽진면에 봉사회가 결성됨에 따라 성주 전 지역에서 활발한 적십자 활동이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24년 경북 내 적십자봉사원은 7,157명으로 전년 대비 388명이 증가했으며, 단위봉사회는 286개로 전년 대비 13개가 증가했다.



**아티스트 이승기 홍보대사 위촉,
“받은 사랑만큼 나눌게요”**

대한적십자사는 1월 7일 국내외에서 널리 사랑 받는 아티스트 이승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시작으로 적십자와 인연을 맺은 이승기 홍보대사는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며 여러 구호활동에 참여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적십자 기후위기 복원력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 뿌듯하다”고 전한 그는 2년의 임기 동안 적십자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고통받는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이른둥이 의료비 후원 기부금 전달**

은행연합회가 2월 3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른둥이 의료비 후원 기부금 1억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이른둥이의 입원치료비, 재활치료비 등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은행연합회는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24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해외봉사활동으로 마무리한
2024 ‘자립시 꽃길로’ 프로젝트**

대한적십자사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자립시, 꽃길로’에 참여 중인 자립준비청년 25명과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 인도네시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자립시, 꽃길로’는 지난해 5월 론칭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 후 꽃길만 걸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지원 사업에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지사



**정동원 팬카페 ‘우주총동원’,
데뷔 5주년 맞이 기부**

가수 정동원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이 서울지사에 적십자 희망성금 1,218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팬덤 기부는 정동원의 데뷔 5주년을 맞아 팬카페 회원들의 릴레이 참여로 마련됐으며, 데뷔 일(12월 18일)을 기념한 금액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팬카페 관계자는 “정동원 데뷔 5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의 정성이 모였다. 가수의 선한 영향력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가수 정동원은 장민호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은또·어썸테이블·까리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뷰티·패션 인플루언서 은또, 가족·일상 인플루언서 까리맘, 요리·살림 인플루언서 어썸테이블이 서울지사에 모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여성용품 회사 내츨컬 코튼에서도 친환경 생리대 7,884팩을 후원하며 행사를 빛냈다.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나눔의 가치가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탈피 지원**

유독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올 겨울 LG유플러스와 적십자봉사원이 힘을 합쳐 AI 기반 기후위기 대응 지원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369세대에 혹한기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시니어 취약계층에 AI 기반 마음관리 플랫폼 ‘답다(답장 받는 다이러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혹한기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어르신 방문 활동과 혹한기 지원물품 전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물권자유 너와’에
1,400만 원 전달**

부산지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불법번식장에서 구조된 약 600마리의 구조견들을 돕기 위해 긴급 모금을 실시하고, 시민과 적십자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모인 금액 1,400여 만 원을 ‘동물권자유 너와’에 전달했다. 모금액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으로 고통받던 구조견들의 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물권자유 너와’의 한다미 대표는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으로 치료 시급한 아이들부터 치료해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소방공무원 대상
마음구호 프로그램 실시**

부산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1일 소방공무원과 가족 31명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마음 씬 데이’ 프로그램은 집단교육을 통해 참가자 본인이 가진 강점을 상기시켜 회복력을 강화하고 관계 이음 활동을 통해 가족과의 공동체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나와 가족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설 맞이 취약계층
장보기 동행**

부산지사 봉사원들은 올사년 첫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의 풍성한 설을 기원하며, 적십자 계열세대와 동행해 설 맞이 장보기를 돕고 생필품 꾸러미를 배부했다. 까치콜봉사회를 비롯한 부산 지역 각 행정동봉사회 모두가 참여한 이번 활동은 BNK금융그룹에서 후원한 1,000가구 대상의 생필품과 한국예탁결제원 KSD 나눔재단에서 후원한 3,3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마련되었다.



**군위군 산불진화 현장에
급식 지원**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던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 대구지사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불 현장에 이동급식차량 1대를 지원하고, 봉사원 및 직원 96명을 파견하는 등 급식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산불 진화에 나선 구조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31일 라면과 음료 등 간식 300인분, 1일 조식 및 중식 각 500인분이 제공되었다. 대구지사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대구지사 최초
가족 봉사회 결성!**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 등 가족 구성원 16명으로 구성된 대구지사 최초의 가족 봉사회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024년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된 조옥수 봉사원 가족이다. 봉사원으로 입회한 아현(9세) 양, 연호(11세) 군, 연준(16세) 군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인 조옥수 봉사원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자연스럽게 경험해왔다고 전했다. 아들 내외 또한 결혼 10주년 기념 제빵 봉사를 펼치는 등 가족 구성원 모두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경안전컨설팅(주),
‘쌔쌔이가 바른기업’ 가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인 대경안전컨설팅(주)이 2월부터 ‘쌔쌔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과 성금 1천만 원 기부로 위기가정 지원에 나섰다. 전정승 대경안전컨설팅(주) 대표이사는 “위기가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위기가정의 자립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기업 참여형 후원 프로그램인 ‘쌔쌔이가 바른기업’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은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053-550-7141



**혹한기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용품 포장**

인천지사는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나눔선사인’을 개최했다. 인천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기부자, 봉사원, RCY 단원 등 약 150명이 참가해 장갑, 양말, 목도리, 핫팩, 신신구급함, 담요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박스 1,010개를 제작했다. 인천지사 조의영 회장은 “추운 겨울을 인천의 모든 시민들이 따스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사리손으로 전하는
적십자 특별회비**

인천 청호초등학교 6학년 학생 40명이 인천지사 서북봉사관에 방문해 적십자 특별회비 4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특별회비는 학생들이 교내 친환경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물건을 제작,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 장하운 학생은 “수익금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전체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기부했다”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43회 지도교수 전국협의회
총회 성료**

제43회 대학RCY 지도교수 전국협의회 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전국 15개 시도의 대학RCY 지도교수 70여 명이 참석해 24년 활동 보고, 25년 사업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선희 회장은 “대학RCY 지도 관련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회의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겨울 김장 나눔**

울산지사는 지난 12월 9일,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와 함께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적십자봉사회 울주군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활동은 고려아연(주)에서 전달한 5,1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한마음 한 뜻으로 제작된 김장김치(13,810kg)는 적십자봉사원들을 통해 울산의 적십자 결연세대와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울산적십자사 청소년 멘토링
해외봉사활동**

울산지사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RCY 단(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이끌고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간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단원들은 빈민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저수지 확장 공사 및 조리실, 도서관 설치 공사에 참여하는 한편,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기초위생 교육도 진행하며 봉사에 전념했다.



**남구 신정동 화재
이재민 구호활동**

울산지사는 2월 19일, 신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정동 아파트 화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 이재민을 대상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총 18가구(45명) 이재민에게 적십자 봉사원과 임직원들이 긴급구호세트 및 비상식량세트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이재민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과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심리 상담부스도 운영되었다.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대전세종지사는 지난 12월 3일, 하나은행 충청 영업그룹과 함께 '2024 온정으로 하나되는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하나은행 임직원 40명과 적십자봉사원 및 직원 90명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해 힘을 보탤다. 정성껏 준비된 배추김치 2,500kg(500박스)와 반찬 6종은 희망 품차 결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등 450세대에 전달되었다.



**노인 안전 위한
『똑똑한 걸음』 프로젝트**

대전세종지사는 지난 12월 6~7일, 대학RCY 회원 및 적십자봉사원 27명과 함께 '똑똑한 걸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RCY 회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탄생되었다. RCY 회원과 봉사원들은 6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 세트를 제작해, 대전 동구 옥계동 일대의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해당 사업은 삼성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되었다.



**재난취약계층 390가구에
겨울 이불 지원**

대전세종지사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한기 난방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약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십자봉사원과 행정기관의 협력으로 발굴, 추천된 관내 취약계층 390가구에 난방용품이 전달되었으며,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활동도 이루어졌다. 대전세종지사는 앞으로도 혹한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구호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지사



**RCY 산타가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경기지사 RCY는 지난 12월 5일 경기도 내 취약계층 청소년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RCY 단원 및 지도교수, RCY 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제작한 총 200개의 선물상자에는 담요, 쿠션, 수면양말, 바디로션, 텀블러, 보조배터리, 크로스백, 멸균우유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13종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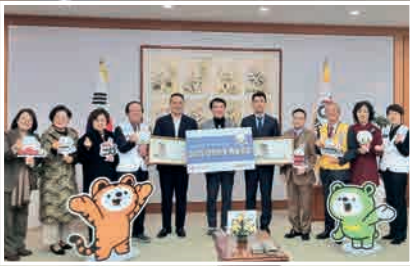
**설 맞아
이산가족 위로 방문**

경기지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고향과 재북 가족을 그리워하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산가족 위로 방문 행사를 가졌다. 우광호 경기지사 사무처장은 1월 24일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는 황해도 출신 신 씨(90세)의 자택을 방문해 아픔을 위로했다. 신 씨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의 추억이 더 생각난다. 적십자에서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월대보름 맞이
오곡밥 나눔**

경기지사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월 11일 오곡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회 수원시협의회 봉사원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과 고사리·숙주·시래기 삼색나물 250인분을 정성껏 만들고 포장했다. 봉사원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독거노인, 아동·청소년 세대 등 수원시 취약계층 250여 세대에 가가호호 전달하며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고액기부처에 감사패 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2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 가입한 (주)명가막국수와 (주)오토트리분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겸 강원지사 명예회장, 김선배 강원지사 회장, 박계수 강원지사 부회장, 반정우 명가막국수 대표, 양봉수 오토트리분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선배 회장은 신규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과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한 강원도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주)파마리서치와 함께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

강원지사는 지난 12월 19일, 강릉 주문진에서 (주)파마리서치와 함께하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배 강원지사 회장, 정상수 파마리서치 이사회 의장, 박필현 파마리서치문화재단 이사장, 박영숙 적십자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약 100명의 임직원과 봉사원들이 참여해 에너지 취약세대 50가구에 연탄을 전달했다. 더불어 파마리서치는 연탄 1만 장과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2천만원을 강원지사에게 기부했다.



**설 맛이 나눔으로
지역사회 훈훈하게**

강원지사는 1월 한 달 동안 속초, 강릉, 홍천, 삼척, 정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설맛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한 적십자회비로 진행되었다. 봉사원들은 국내산 쌀로 만든 떡국 떡과 쌀국수, 직접 빚은 만두 등 음식을 630세대에 전달했다. 또한 삼척지역 저소득층 가정에는 연탄 총 2,000장을 전해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봉사원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2025년 충북 RCY
겨울 현장체험학습 전개**

충북지사는 2월 3일 롯데월드에서 충북 RCY 겨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RCY 단원으로서 소속감을 증진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 및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체험학습에는 초·중·고 RCY 단원 및 지도자, 대학 RCY 회원 등 129명이 참여했다. 충북 RCY는 '사랑나눔 연탄나눔 봉사활동', '너의 꿈을 응원해', '지구야 미안해, 고마워!', '무심천 벚꽃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북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충북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이하 충북 자문위)는 1월 8일,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30-31대 자문위원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하는 한편, 자문위와 31대 김미나 위원장, 유종영 부위원장, 김정대 위원이 2025년 적십자 희망성금에 동참하며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충북 자문위는 도내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자문과 후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양경찰학교 317기 신입경찰관
나눔교육 전개**

충북지사는 2월 21일 중양경찰학교에서 신입경찰관(317기)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했다. 나눔교육은 2023년 체결된 중양경찰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과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후원 참여자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 명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중양경찰학교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장현 교무기획팀장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라운하제 멘토링' 진행**

충남지사는 지난 12월 도내 육아원과 협조해 '라운하제 멘토링'을 실시했다. 라온하제는 '즐거운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라온하제 멘토링은 대학RCY 회원과 자립준비청년이 함께 즐거운 내일을 만들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2월 한 달간 대학RCY 회원 4명과 자립준비청년 4명이 일대일 멘토-멘티가 되어 건강 요리를 배우고 화장품 수납함을 만들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등, '즐거운 내일'을 위해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새해 맞이
떡국 나눔 봉사활동 펼쳐**

충남지사 상임위원회는 1월 9일 천안 적십자봉사관에서 올새해 새해를 맞이해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는 문은수 충남지사 회장, 김호택 부회장, 지사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임위원 1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온기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떡국과 함께 마련된 동그랑땡, 잡채, 과일 등 정성 가득한 식사는 천안 적십자봉사관 무료급식소를 방문한 70여 명 이웃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었다.



**충남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남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2월 5일 충남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희망 나눔에 동참했다. 각 500만 원을 전달한 김춘옥 위원과 김영숙 위원을 포함해 주희정 위원장 등 총 18명의 위원이 총 2,80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주희정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별회비 전달에 동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으로 소외된 이웃의 곁에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창해에탄올,
백미 기부 및 봉사활동 실시**

(주)창해에탄올이 전북지사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농협전북본부와 (주)창해에탄올의 전북 쌀 소비촉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도내 쌀 소비 촉진과 연말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창해에탄올 임직원 25명을 비롯해 봉사원, RCY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연희 (주)창해에탄올 대표이사는 "임직원 모두가 직접 물품을 전달해 더 뜻깊다. 어르신들의 미소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손가정 심리치료 및 선물 나눔 진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북지사와 함께 조손가정 25가구를 초청해, 한국전기안전공사 1층 새울림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및 원예 심리치료 행사를 진행했다. 외부 원예치료사를 초청해 크리스마스트리를 사용한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수혜자 가구에 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함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티앤제이건설(주),
지역사랑 상품권 1천만 원 기탁**

티앤제이건설(주)이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고태유 티앤제이건설(주) 회장, 김지혜 사장, 이선홍 전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지역사랑상품권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고태유 회장은 "이번 나눔으로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티앤제이건설(주)은 고태유 회장을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관내 위기가정 지원금 기탁, 백미 기부, 라면 기탁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도 레드크로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성료**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2월 19일 시민 봉사자들이 적십자봉사와 함께 사전 제작한 목도리를 ‘인지건강 주거안전키트’와 함께 포장해 나주지역 노인시설에 직접 전달하는 ‘크리스마스에도 레드크로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한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이번 활동에서는 목도리 및 키트 전달과 함께 노인 대상 스마일 힐링 체조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추워진 연말에 따스함을 더했다.



**광주·전남지역
세 번째 ‘캠코브러리’ 개소**

광주·전남지사는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너랑나랑 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43호점 개소식을 진행했다. 캠코브러리는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 문화 개선 및 정서 함양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캠코와 협력해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보호시설에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24호), 여수(38호)에 이어 세 번째 개소로, 광주·전남지사는 총 5년간 독서지도,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을 관리할 예정이다.



**(주)럭키산업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필품세트 기부**

(주)럭키산업은 1월 2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전남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세트를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칫솔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세트는 전라남도청 인구청년인민국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다문화가족 1,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다문화가족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여중 RCY 단원,
‘산타 클로즈 프로그램’ 실시**

경산여중 RCY 단원 18명은 지난 12월 7일 ‘산타 클로즈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80가구에 직접 제작한 ‘희망 꾸러미’(400만 원 상당 생필품)를 지원했다.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 대부분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산여중 RCY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정유경 단원은 “작은 마음과 정성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활발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혹한기 대비 취약계층 차렵이불
1,200채 지원**

경북지사는 지난 12월 16일 도내 취약계층에 혹한기 대비 차렵이불 1,200채를 지원했다. 이번 물품은 기후재난 취약계층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빙그레와 유한킴벌리, 네이버 해피빈 네티즌 기부를 통해 마련되었다. 김재왕 경북지사 회장은 “이불과 함께 기부자분들께서 모아주신 따뜻한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겠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모금 통해 구미시 위기가정에
1,141만 원 지원**

경북지사는 1월 8일, 온라인 모금을 통해 마련된 1,141만 9,400원의 성금을 구미시 위기가정 1가구에 지원했다. 대상 가구는 2023년 적십자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희귀난치질환 판정을 받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다. 이번 성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1,896명의 누리꾼과 LG 헬로비전 임직원들의 동참으로 마련되었다. 김재왕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학RCY
인도네시아 해외봉사활동**

경남지사는 인제대학교(1차), 경남대학교(2차)와 함께 대학적십자 인도네시아 해외봉사활동을 성료했다. 대학RCY 회원들은 인도네시아의 학교 및 낙후 지역을 방문해 교육봉사, 문화 교류 활동, 운동회, 우정의 선물 전달, LIG넥스원 에코백 전달, 기후위기 장소 탐방 등 현지 학생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유기체폐기물 배수구 설치 및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나눔의 집
리모델링 개소**

취약계층을 위한 맛 나눔터 시설인 적십자 나눔의 집이 지난 12월 리모델링을 거쳐 개소했다. 2009년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의 모금(5천만 원)을 통해 문을 연 이래, 2024년 다시 한번 전국 자문위의 모금(7천만 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 노후화된 자재를 교체하고 출입구 이동통로를 변경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했으며, 태양광 조명등 설치 및 주방기구 교체, 봉사원 휴게공간 설치로 더욱 쾌적하게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창원한마음병원,
위기가정 명절선물세트 지원**

창원한마음병원이 경남 내 결연세대 중 1,410가구에 4,526만 원 상당의 지원금과 명절선물세트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 행사는 지난 12월, 경남지사가 주최한 '희망나눔 김장 한마당'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나누는 것으로 1차 진행했으며, 설 명절을 맞이해 2차 후원이 이루어졌다. 지원 물품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경남지역 내 18개 시군에 배송됐다.



**2024 적십자 나눔유공자
시상식 개최**

제주지사는 지난 12월 24일 아스타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후원자, 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적십자 나눔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수행을 위한 성금 모금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285명이 나눔유공자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을 통해 대표 수상자 60여 명에게 포장 및 표창이 전달되었다.



**서귀포시
8개 행정동봉사회 결성식 개최**

제주지사는 지난 12월 27일 서귀포시청 별관에 서귀포시 내 8개 행정동봉사회 합동 결성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성식에는 정태근 제주지사 회장,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 오순문 서귀포시 시장을 비롯해 적십자봉사원 등 150명이 참석해 신규 봉사회의 첫걸음을 축하해주었다. 정태근 회장은 "서귀포시 행정동봉사회가 100% 결성되어 이웃들에게 촘촘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결성된 8개 봉사회와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제주본부-적십자사 설 맞이
차례상 장보기 봉사활동 진행**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제주지사는 애월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임직원, 적십자봉사원 및 수혜자 가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설 맞이 차례상 장보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농협 임직원 및 농업인들의 기부로 조성된 제주농협 행복나눔기금 재원 3,200만 원과 적십자사 희망나눔성금을 통해 마련한 1,000만 원으로 농촌지역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400가구에 설 맞이 장보기를 지원했으며,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과 떡구떡 400kg을 후원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생생한 활동 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RedCross> 소식지를 만나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연 4회 <RedCross>를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RedCross> 웹진 구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독 시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 신청하기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후원자라면 정보 최신화하기!



<RedCross>를 이미 받고 있던 후원자라면 회원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우편물 반송을 줄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신청한 경우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 02-3705-3754로 문의

<RedCross> 2024년 겨울호 독자 의견

시한부 엄마를 돌보는 서준이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요. 사춘기라 떼도 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텐데, 엄마를 생각하는 서준이의 마음이 기특합니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면서도 아이를 걱정하는 서준이 엄마에게도 웃음 가득할 날이 올 거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적십자 파이팅입니다.

김서연 안양시 동안구 _____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차가운 사회의 바람을 막아줄 어른 없이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 있었는데, 대한적십자사의 '자립시, 꽃길로' 프로젝트 같은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경 서울시 양천구 _____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정한 이웃'>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반찬 나눔 봉사는 물론 대상자의 집을 살피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려 노력하는 봉사원님을 보며 '우리 주변에 따뜻한 이웃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된 집에서 삼부자가 편안하게 지낼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영혜 울산광역시 중구 _____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꼭지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오래 전에 만들어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적십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영원히 국민 곁에서 함께해주세요. 저도 더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전예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_____

후원자 선물 당첨

-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 김서연, 이영혜, 장민경, 전예빈
-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 박정란, 김민지, 임보람, 남병철, 최경용
-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 정충호, 제갈경식, 박시언, 정경석, 유재범, 오수연, 홍성훈



후원자 코너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독자 참여 QUIZ!



각 문제의 정답을 지운 뒤,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
<RedCross> 3월호에 문제의 힌트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대	인	난	정	로
사	심	일	의	자
회	폐	원	구	심
소	종	적	재	우
주	호	도	복	요
술	십	리	생	한

선물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만 원)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역사 속 대한적십자사 - 6쪽]

대한적십자사는 법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0000 기관입니다.

[RC 국내 리포트 - 8쪽]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으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000000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C 해외 리포트 - 12쪽]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인 배우 000는 청소년적십자 회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해외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RC 사람들 - 16쪽]

대한적십자사의 0000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최갑수의 여행 - 26쪽]

1905년 고종황제 칙령 제47호에 의거, 빈민 구료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국적십자병원의 터는 서울 00구에 있습니다.

[일상 속 RC - 28쪽]

산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한 후 신속하게 00000(CPR)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2025년 <RedCross> 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2005



2023



1905 - 2025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마다, 대한적십자사가 희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